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11월 0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40호

불교총지중 제 94회 추계 강공회 개최

종령 법공 예하, 수행자로서 성장하는 자리되어야



불교총지중 제 94회 추계 강공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총지중 본산 총지사에서 개최되었다. (왼쪽) 수행을 점검하고, 강훈 중인 종령 법공 예하(오른쪽)

총기 48년 불교총지중(총리원장: 인선 정사) 제94회 추계 강공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총지중 본산 총지사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전, 현직 승직자들이 전체 모여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되는 강공회는 수행을 점검하고, 승단 의사 결정과 종령 강훈, 일반 교육 등을 시행한다. 종령 법공 예하, 총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전국 스승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 종조전 참배대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계 강공에 들어갔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원당에서 강공회 개강불사를 봉행하고, 종령 법공 예하 강훈과 강공 취지에 맞는 교육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또 승단총회를 열고 새 종의원 선출 및 승단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원의회 및 재단이사회, 종의회를 마쳤다. 종령 법공 예하는 개강 불사 법어를 통해 “연중 춘추로 두 번 하는 강공은 정말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각자 자기 맡은 소임에서 공부도 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는 독자적으로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 같이 점검하고, 함께 익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수행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강공이 되어야 합니다.”며 교리적인 깊이를 심화하는 강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에는 종조 원정대성사를 비롯한 총지중 열반 스승 서

역서 영식과 유연영식의왕생성불을 서원하는 추선불사를 총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했다. 이날 불사에는 교도들도 동참하여, 꽃과 과일을 올리며 열반 스승들을 함께 기리고 추선했다. 불교총지중은 매년 추계 강공회에서 종단 교화 스승으로 봉직하다 입적하신 승직자들을 위한 합동 추선불공을 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붓다의 메아리 울려 퍼지다

정각음악제, ‘가을, 깨달음을 노래하다’ 성료

붓다의 메아리가 정각의 도량에서 울려 퍼지는 2019 정각음악제 ‘가을, 깨달음을 노래하다’가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부산 정각사 서원당(주교: 도현 정사)에서 성대히 열렸다.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을 비롯하여, 부산지역 이웃 종단의 합창단이 참여하여, 600여 관객과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서원하는 명실상부한 불교 음악제의 면모를 나타냈다.

장: 김진규)은 ‘연꽃향기’를 불렀으며, 관객과 함께 하는 무대로 ‘단발머리’와 ‘여행을 떠나요’를 울동과 함께 이어 불렀다. ‘간파모레’는 참여 합창단 중 유일한 혼성합창단이다. 진각종 스승과 교도들의 대거 참여와 응원 속에 소개된 진각종 유가합창단(단장: 정영희)은 ‘낮은 목소리’와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을 불렀다. 해원정사 합창단(단장: 이옥련)은 ‘바람’과 ‘홀로 아리랑’을 마지막으로 범어사 합창단이 ‘백중놀이’와 남진의 ‘님과 함께’를



불교 방송인 김덕수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1부와 2부로 나뉘어 두 시간 가량 열렸으며, 정각사 경내에 오전부터 마련된 다양한 먹거리 장터와 체험마당은 공연관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축제의 흥을 높였다. 첫 번째 순서로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은 ‘두꺼비, 들갈갈갈’ 접속곡과 가수 이승철의 히트곡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불렀다. 안방마님다운 면모로 첫 무대를 완벽하게 열었다. 이어 흥법사 간파모레 합창단(단

부르면서 음악제를 신나게 마무리했다. 이날 또 식전 축하공연으로는 정각사 밤벨트의 연주가 있었으며, 특히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 공연은 관객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또 합창 중간에는 소리꾼 정선희 명창이 초대되어 신호수 교수의 연주로 판소리 흥보가 중 ‘돛타령’을 불렀다. 한편 참여한 합창단의 지휘자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의 특별 공연은 정각사 서원당을 세계적인 오페라 전당 스타일라 극장 못지않게 변모시켰다. <관련기사 6면>

제12대 중앙 종의회 새 의장에 도현 정사

부위원장 법일 정사, 종의원 안성 정사 선출

제 12대 중앙종의회 새 의장에 도현 정사(정각사 주교)가 선출되었다. 또 부의장이었던 도현 정사가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빈자리가 된 종의회 부의장에 법일 정사(수인사 주교)가 선출되었다. 지난 10월 22일 강공회에 앞서 열린 제 147회 정기 종의회에서는 종의의원 총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현 정사의 유고로 공석이 된 종의회 의장 보궐

선거가 치러졌으며,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제 12대 종의회는 총기 46년(2017년) 4월 25일 출범하여, 오는 총기 50년(2021년) 4월 24일 4년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은 남은 임기를 이끌어 간다. 또 10월 23일 개최된 제 143회 승단총회에서는 새 종의원에 안성 정사(만보사 주교)를 선출하였다.

종의회 의장 도현정사는 2006년 12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었다. 제9, 10, 11대 중앙종의회 종의원을 거쳐 제12대에는 부의장을 역임 중에 의장에 올랐다. 현 정각사 주교이며, 사회복지재단 이사, 사감 위원, 동해중학교 감사 등 종단 소임을



종의회의장 도현 정사



부위원장 법일 정사



종의원 안성 정사

두루 맡아왔다. 부위원장 법일 정사는 제 10, 11 종의원, 12대 종의원에서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안성 정사는 2003년 12월 승직에 들었으며, 제 9대, 11대에 이어 12대 종의원이 되었다.

중/조/법/어

하루하루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의뢰하지 말며, 부지런히 배우고 권세에 아부하지 말라.

지면안내

4면 <새 연재> 법선 정사의 심뽀이야기 5면 <새 코너> 이달의 법문 9면 동해중학교 소식 10면 붓다와 문학

봄 동해중학교 52주년 창립기념 축 1967년 11월 27일 개교

동 해 중 학 교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Tel. 051.555.4456

제4차 스승 심화교육 실시, 11월 20일부터 초발심 강의와 분임 토의, 밀교 관법 수련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 주최로 제4차 스승심화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로 통리원 반야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정진하고 교화한다는 각오로 종령 범공 예하의 초발심 강의가 있으며 교재는 화령 정사가 번역한 <초발심자경문>을 채택했다.

종령 범공 예하는 “우리가 비록 재가 종단이라고 하나 어느 출가종단 못지 않게 도덕성과 계율 준수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신임 승직자들도 이

러한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고 기존 스승들도 다시 한번 승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선택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교육기간에는 종단발전과 포교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인 종단 운영을 위한 분임 토론회도 갖기로 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한 분임토론회를 통하여 모든 승단 구성원이 종단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실제적인 방안 도출을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빠짐없이 분임토에 소속될 것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심화 교육은 이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과목의 하나로 밀교의 관법개요와 함께 월륜관, 아식관, 아자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원장 화령정사가 담당하게 될 이 과목은 밀교관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제 수행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월륜관은 밀교의 여러 가지 비밀 수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 고도 심오한 관법으로서 그동안 중원사 수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모든 승단이 집단으로 관법수련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령 정사는 “이번 심화교육이 우리 종단이 명실상부한 정통 밀교 종단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종령 예하의 <초발심 자경문> 교육과 관련하여 화령정사는 “제가 종단과 크게 관계가 없을 듯한 <초발심자경문>을 번역하여 출간하게 된 것은 시중의 많은 번역서들이 원문과 함께 번역문에서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교재에 대해 설명했다.

통리원장, 신노엔 일본 총본산 방문 한·일 양국 간 불교 교류 통한 화합 도모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일본 종교법인 신노엔 초청으로 일본 총본산을 방문한 신노엔 총본산을 방문해 이토신소 원주해 한일 양국 간의 불교 교류를 통한 화합을 도모했다.

지난 10월 6일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일본 신노엔 총본산을 방문해 이토신소 원주와 함께 차담을 나누며 양국 불교발전과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취임 선암사 주지 시각스님, 종단 정상화 의지 밝혀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지난 10월 17일에 태고총림 전남 순천 선암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열었다. 또 이날 태고총림 선암사 제31대 주지 시각스님 진산식도 같이 봉행되었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선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호명스님은 27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선언했다. 당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 이행을 지킬 것을 다짐했고, 종단 정상화를 위한 원력 결집을 당부했다.

제 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주해 통리원장 인선 정사, 한국불교 대표 주제 발표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중국 광둥성 주하이 보타사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2박3일 간 열렸다.

이번 대회 한국대표단으로 총지종은 통리원장 인선 정사, 총무부장 원당 정사, 재무부장 덕광 정사가 통리원에서

또 전국에서 서령, 도우, 범상, 남해 정사가 참가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문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회성정사(진각종 통리원장)를 비롯한

한국불교의 지도자 105명이 동참했다. 특히 본대회가 열린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불교와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이라는 주제의 학술강연회에서는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스님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참가자들은 ‘제22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주해 대회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삼국 불교도들이 손을 맞잡고 어깨를 함께하여 같은 마음으로 협력, 법맥과 우의를 증진시켜 동북아 국민들의 행복과 세계인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

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융맹정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식행사를 마친 후 한국 대표단은 육조 해능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광동성 지역의 고찰인 광화사와 대표적 선종사찰인 남화선사를 참배한 후, 11월 2일(토) 귀국한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5년 제1회 중국 북경대회를 시작으로 3국의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이를 위한 3국 불교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중국, 한국, 일본 순서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동북아 대표적 국제불교행사로 내년 2020년에는 제23차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내 마음의 등불

선림사 도관 정사 편

어떤 것이 힘센 것인가

“어떤 것이 힘센 것이며 가장 밝은 것입니까?”

“욕심을 참는 것이 힘센 것이다. 욕심을 참으면 악한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함과 씩씩함을 겸하게 된다. 참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으므로 반드시 남의 존경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때가 다 없어져 깨끗해지니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시방세계에서 생긴 일을 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것이 없이 일체지(一切智)를 얻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불교총전 467쪽 8번, 사십이장경 중>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선림사 도관 정사님은 다음 주자로 백월사 주교 혜광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진각종, 제13대 총인 경정 대종사 추대 10월 24일,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 봉행

진각종 제 13대 총인 경정 대종사 추대법회가 10월 24일 오후 1시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추대법회는 △개회사 △내빈입장 △삼귀 명례 △강도발원△개회예참 △수행이력 소개 △봉행사 △추대사 △칭법사 △범어 △화환증정 △축사 △축연(서울교구연합 합장단) △폐회예참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총인 경정 예하는 “자성광명, 우리의 본성은 광명이다. 마음의 빛을 밝혀면 제 자리를 찾아 삶의 주인공이 된다.”며, “여기 오신 여러분과 온 세상이 안락하기를 서원한다.”고 범어를 내렸다.

이날 법회에는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지민 스님, 위덕대 장익 총장 등 불교계 정·관계 인사 등이 동참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제 94회 추계강공회

총의회 의장 부의장, 재단이사 등 선출
10월 22일, 제 147회 정기 총의회 개최



재단이사 법수연 전수



동해중이사 법상인 전수

제147회 정기 총의회가 강공회 하루 앞서 지난 10월 22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열렸다. 총의회 부의장 도현 정사가 주재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의회에서는 총기 48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49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재단이사, 동해중이사, 동해중 감사



동해중감사 도우 정사

를 선출했다. 법경 정사가 사감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공석이 된 재단이사에서 법수연 전수가 선출되었다. 또 법상인 전수가 동해중학교 새 이사에 선출되었으며, 현 동해중학교 감사 도우 정사는 연임되었다. 이어 진행된 제 12대 중앙총의회 새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서 의장에 도현 정사와 부의장에 법일 정사가 자리에 올랐다.

총지중 열반스승 추선불사 봉행



10월24일 종강불사를 앞두고 서원당에서 열반스승 추선불사가 봉행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와 통리원장을 시작으로 참석한 승단 스승들이 훈향 정공과 헌화를 하고 있다. 귀명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 귀명 금강견고 자성신 아축불, 귀명 공덕장엄 취신 보생불, 귀명 수용지혜신 아미타불, 귀명 작변화신 불공성취불

중단현황공유, 중앙총회 의원 선출
10월 23일, 제 143회 승단총회 개최



종령 법공 예하가 중앙총의회 새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중단 최고의 의결기관 제 143회 승단총회가 강공회가 열리는 가운데 10월23일 반야실에서 개최되었다. 승단총회에서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중단 현안 설명과 함께 중앙총의회 의원 보궐 선거가 이루어졌다. 재개발 및 부지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국 사원 열 군데에 위치한 득락전과 관련 이용 안내를 위한 공동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년 봉행될 교도 수계식에서 수여될 가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임을 알렸다.

인선 정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또 이날 중앙총의회 새 의원으로 부산 법성사가 11월 중 안료 될 것 안성 정사(만보사 주교) 가 선출과 대전 백월사와 서울 정심사의 되었다.

통리원 원의회와 재단이사회 연석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총지중보 내년 총지신문으로



불교총지중 통리원 제181회 원의회와 제 124회 재단이사회가 연석회의로 지난 10월22일 통리원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하여, 집행부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총기 48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49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총지중보를 내년 1월부터 총지신문으로 제호 변경을 의결하고, 중단 기관지 성격에서 벗어나 총지교도를 비롯한 모든 불자와 일반 시민 속에 불교총지중 흥포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개천사 범등 정사, 지인사 승효재 전수, 제석사 시정 정사, 국광사 해안정 전수의 2차 촉탁(총기 49년 1월1일-50년 12월 31일)과 개천사 인덕심 전수의 1차 촉탁(총기 49년 1월1일-51년 12월 31일)의 연장근무심의의 결했다.

축(軸)의 시대 사상가들의 가르침

합리적 사고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 모색
스승과 제자, 대화법을 통해 가르침 주고받아

우리는 불교를 전통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불교에서 '한국'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가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제 한국불교에서 '불교'에도 방점을 찍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청동기 시대까지도 인간관계가 여전히 혈연중심에 머물러있었다면, 철기시대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때의 인간관계는 인간을 둘러싼 사회구조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 축의 시대의 사상가들이었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그들의 사상적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모색하였다. 이시기 동서양이 도달한 도덕률(道德律)의 하나로 유교의 기소불욕물사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을 든다. 이 원칙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또한 이 시기의 인류의 스승들은 스승과 제자가 대화법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받았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에서 보듯 스승과 제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도반(道伴)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진리를 터득하도록 안내하였고, 논어(論語)는 공자와 제자의 대화를 담은 책이고, 초기 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은 붓다와 제자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K. Jaspers)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의 이 시기를 축(軸)의 시대(axial age)라고 이름 하였다. 축이란 마차의 두 바퀴를 연결하는 굴대를 가리키는 말로, 축의 시대는 인류 문명이라는 마차가 굴러가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기의 사상가들이 펼친 내용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축의 시대의 자장(磁場)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경제사적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청동기 시대는 여전히 나무와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기에 이전 시대인 신석기 시대보다 생산력이 증대되어 문명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철기 시대가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잉여생산물의 증가는 물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자연스럽 게 원거리 교역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어났다. 청동기 시대까지도 인간관계가 여전히 혈연중심에 머물러있었다면, 철기시대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때의 인간관계는 인간을 둘러싼 사회구조 전반에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 축의 시대의 사상가들이었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그들의 사상적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모색하였다. 이시기 동서양이 도달한 도덕률(道德律)의 하나로 유교의 기소불욕물사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을 든다. 이 원칙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또한 이 시기의 인류의 스승들은 스승과 제자가 대화법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받았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에서 보듯 스승과 제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도반(道伴)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제자들에게 진리를 터득하도록 안내하였고, 논어(論語)는 공자와 제자의 대화를 담은 책이고, 초기 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은 붓다와 제자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2020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학년도 학교법인 관음학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법인명	학교명	선발예정과목	선발예정인원	비고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국어	1	
		수학	1	
		생물	1	

2. 응시원서 접수※ 우리 법인은 공·사립 동시지원 가능

가.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019. 10. 21.(월) 09:00 ~ 10. 25.(금) 18:00(5일간)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9. 10. 26.(토) 13:00 ~ 10. 28.(월) 18:00(3일간)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2020학년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는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국·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라. 접수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pen.go.kr) - '중등교원채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배너마당 - 중등임용'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1차 + 2차 일부 위탁>

제1차 시험 : 2019. 11. 23.(토)

· 시험장소 공고 : 2019. 11. 15.(금)10:00 예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새소식→고시/공고) http://www.pen.go.kr

제 2차 시험 : 2020. 1. 21.(화)

· 시험장소 공고: 2019. 12. 31.(수) 10:00 예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새소식→고시/공고) http://www.pen.go.kr
· 동해중학교 홈페이지 http://psdonghae.ms.kr/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시간 등) 및 기타 시험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니 동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합격자 발표

구분	일자	장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19. 12. 31.(화) 10:00 예정	동해중학교 홈페이지 http://psdonghae.ms.kr/
최종 합격자	2020년 2월 중 예정	

※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학교법인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법등정사 총지법장
總持法藏

**아금불시거(我今不是渠),
지금 나는 그 것이 아니다.**



심보 이야기 1

법선정사

심보(心樞)는 '마음 보자기'

‘심보가 고약하다.’ ‘도둑놈 심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사전적으로는 심(心)은 마음을 나타내며 순우리말은 ‘마음보’라 한다. ‘심보’에서 ‘보’는 한자가 같이 쓰는 접미어인 것 같다. 여기서는 보자기와 포대기의 의미가 있는 포대기 ‘보(褌)’로 표현해본다. 포대기나 보자기는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싸고 묶는 용도로서 심보는 마음을 싸고 묶는 의미의 마음그릇이라 하고 싶다. 마음보자기는 마음을 쓰는 본바탕, 생각이 담긴 보자기일 뿐 아니라 담긴 생각에 따라 인격과 기질과 행동이 되어 나타나는 보자기이다. 능엄경에는 심보에 대해 ‘일수사건(一水四見)’의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일수사건’은 하나의 물(一水)이 네 가지로 보인다(四見)는 뜻이다. 예를 들면 천상계에 사는 천인(天人)들에게는 물이 맑은 유리보석으로 보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시고 씹는 것으로, 물고기들에게는 사는 집으로, 아귀들에게는 피고름으로 인식된다는 내용이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여 진다는

뜻이다. 즉 모든 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되는 객관사이에 성립되는 다양한 인연(因緣)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인식주관에 의하여 달리 인식되어질 뿐이다.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신라의 원효스님이 당나라 유학길에서 전날 밤 맛있게 마신 물이 다음날 아침에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후 유학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더 높은 진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원효스님의 이러한 깨달음은 똑같은 물이지만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이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답을 마음에서 찾았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물일지라도 스스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보는 자에 의하여 다양한 각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 판단의 정당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찰

을 요구한다. 현재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이 전부 아니라 그것은 내 인식의 한계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것이며, 나와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생명체는 어느 공간에도 존재할 수 없다.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의 세상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인식에 대한 존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다. 그리하여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경전을 한글자로 함축하면 마음 심자(心) 한글자로 표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마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는 마음에 대한 탐구를 위한 종교이며,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주도하는 수행으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여 행복을 얻고자 한다. 착한 마음에서 행복이 올 수 있으며, 나아가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중생에서 깨달음의 부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연명이로 18

법상정사

죽음이란 무엇인가③ _멋진 삶이 멋진 이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인생을 즐겨라. 견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 보고 싶은 곳에 여행을 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옛 동창들, 옛 동료들, 옛 친구들과 회동하라. 그 회동의 관심은 단지 모여서 먹는 데 두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즐긴다는 데 둔다. 돈! 은행에 있는 돈은 실제로는 나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돈을 써야할 때에 바로 쓰라. 늙어 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사고 싶은 것 있으면 꼭 사고 즐겨 워하라. 즐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질병은 기쁨으로 대하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것이 인생이니까! 병이 들면 겁을 먹거

나 걱정하지 마라. 장례식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건강할 때 미리 손을 보라. 그래야 언제든지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몸은 의 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만일 걱정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미리 걱정하고! 만일 걱정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미리 그렇게 하고! 만일 걱정이 행복과 바꿀 수 있다면 미리 걱정하라! 그러나 결코 아니다. 걱정해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자녀들은 다 그들의 분복(分福, fortune)이 있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다물고 배후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이런 원칙을 세워보는 것이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다. “보살펴야 할 오래된 보물” ① 늙은 몸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가져라. 나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힘써야 한다. ② 은퇴금 내가 번 돈을 내가 스스로 간직하는 것이 상책이다. ③ 오랜 배우자 나의 다른 반쪽이다. 매 순간마다 소중히 여겨라. 언제 둘 중의 하나가 먼저 떠날지 모른다. ④ 옛 친구들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마다 놓치지 마라. 그와 같은 기회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간다. “매일 실천하라” ① 웃어라(Laugh). ② 미소(Smile) 지어라.

“뜰에 심은 저 나무가 매일 자라나지마는 항상 보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 수행과정에도 매일 성품 좋아지나 항상 보는 사람들은 좋아진 줄 모르지만 오륙 칠 년 지나 보면 좋은 성품 보일지라.”

(종조법설집 P.147 계속)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는다. 특히 장문일 때는 처음부터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글에는 O.S.T도 없고 또 글보다 더 재미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문을 짧게 하려고 한다.

어느 날 논객이 찾아왔다. 그는 밀교의 수행법과 밀교수행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궁급해 하며 물었다. 이에 밀교의 수행법인 삼밀관행법과 육행실천법을 소개하고 '즉신성불'을 소개했다.

자기마음 이외에 마음 두지 말아야 '즉신성불' 밀법 수행으로 신통경계를 얻어 부처의 경지로

불(即身成佛)을 말하니,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삼아승지검 성불'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금생에 이 몸으로 성불한다.'고 하니 매우 의아해하며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수행의 시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수행의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는가 하는 것 보다 어떤 수행법으로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밀교 성불의 삼중수행과 삼망집(三妄執)의 중생 망상 번뇌와 집착을 여의면 무루의 정보리심(淨菩提心)이 생하여 출세의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즉, 중생 무명의 삼업과 번뇌를 닦아 부처님 같은 삼밀행을 실천하게 되면 금생에 이 몸으로 '즉신성불'을 하는 것이다.

수행의 본원(本原)이 즉신성불인 밀교의 진언수행자들은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자기 수행을 하고, 이 법으로 교화법을 삼아야 한다. 즉신성불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체중생을 위하여 성불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일으키고 일체법의 공성(空性)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며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으켜 습이 되도록 해야 하며, 본존을 관하고 삼매를 부지런히 닦아야한다.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에서 불보리(佛菩提)를 증득하고 진언법만이 즉신성불하는 까닭에 삼마지(三昧)법을 설한다. 그리고 수행자는 자기마음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만 즉신성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불은 아승지검으로 요원해질 것이다. 취할 바와 버릴 바를 분명히 하고 자기마음 밖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한 길로 닦아 가면 자신의 삼업이 삼밀화되고 망집(妄執) 하나가 '아승지검'이라, 삼망집을 소멸하면 이것이 3아승지검의 즉신성불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수행하는 진언 행자는 이미 지난날의 내가 아닌 것이다.

'아금불시거(我今不是渠)' 이 말은 중국 조동종의 종조인 양산 동개선사의 오도송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의 이 몸은 그 때 그 몸이지만, 지금의 나는 그 때의 그('渠'는 3인칭 '그'의 뜻, 즉 지난날의 나)가 아니다."는 뜻이다. 밀교소의경전인 대일경에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신경통(神通)을 얻어 대공위(大空

位)에서 유보(遊步)하는 신비밀(身祕密)을 성취한다.”고 했다. 밀법의 수행으로 신통경계를 얻고 부처의 경지가 되어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롭게 행하게 되면 즉신성불을 이루게 된다. 즉신성불의 대도를 걷는 지금의 내가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타고난 성품과 짓는 업이 바뀌었고 복과 운명이 변하여 더 좋아지고 향상된 것이니, 이미 그 때의 내가 아닌 것이다. 마치 몰라보게 성큼 자란 뜰 앞의 저 나무처럼, “뜰에 심은 저 나무가 매일 자라나지 마는 항상 보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 수행과정에도 매일 성품 좋아지나 항상 보는 사람들은 좋아진 줄 모르지만 오륙 칠 년 지나 보면 좋은 성품 보일지라.” (종법 P.147 계속)

즉신성불로 가는 우리 진언수행자는 날마다 좋아지고 향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고 약착같이 닦으며 살아야 한다. 지금 금생에 바꾸지 못하면 죽어서도 가져가니 지은 업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사나. 애착하고 집착하던 이 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무엇을 가져가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강원도 금강산에는 '팔만구 암자'라 할 만큼 많은 암자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곧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 있었다.

(다음호에 이어짐)

불교총지중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1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수능시험을 앞두고 어떤 마음 자세로 불공해야 할까요?



도현 정사

접촉이 주는 편안함

1950년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Harry Harlow)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원숭이 실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할로우는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가 신체적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짜 어미 원숭이 두 종류를 만들었다. 하나는 부드러운 보풀이 있는 따뜻한 감촉의 천으로 만들었지만 먹이로 주는 우유병이 없고, 다른 하나는 차갑고 딱딱한 철사로 만들었지만 우유병이 있는 어미 모형이었다. 실험 결과 새끼 원숭이들은 한 걸 같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의문이 실험의 시작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의 기본

부드러운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를 더 좋아했다. 흥미로운 것은 새끼 원숭이들은 우유가 나오는 철사 원숭이한테는 가지도 않고 거의 하루 종일 부드러운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만 매달려 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잠깐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게 가서 우유만 먹고는 얼른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 품에 안겼다.

할로우는 새끼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공포 반응도 살펴보았다. 새끼가 있는 우리 안에 무섭게 생긴 모형물을 갑자기 집어넣어 공포 상황을 만든 뒤 새끼 원숭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새끼 원숭이들은 한 걸 같이 철사 원숭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달려가 바짝 몸을 붙이고 비비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했다.

할로우는 이번에는 우리에서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를 아예 없애 버렸다. 그런 다음 새끼 원숭이들에게 공포 자극을 주었다. 할로우는 새끼 원숭이들이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 달려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새끼 원숭이들은 철사 어미 원숭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구석으로 달려가서는 몸을 바짝 움츠렸다. 그리고는 두렵고 위축된 모습으로 손가락을 빼는 등 불

안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들 새끼 원숭이들은 어른 원숭이가 되어서도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보이고 새끼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실험은 왜 새끼 원숭이가 공포 상황에서 철사 어미 원숭이에게 가지 않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불안한 상황에서 혼자 있기보다는 비록 따뜻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새끼 원숭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록 감촉이 차갑긴 해도 생명

을 위해 꼭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어미 원숭이가 있었는데도 새끼 원숭이들은 공포 상황에서 철사 어미를 찾아가지 않고 혼자 외로이 남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해리 할로우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접촉이 주는 편안함’을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했다. 사랑은 그냥 먹는 것을 주는 따위의 보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 아이 키우기」란 책을 쓴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수잔 베일은 성공적인 자녀 육아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그중 첫째로 부모와 아기의 신체적 접촉을 꼽았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공생관계다. 이때 아기는 우리만 있을 뿐 나와 타인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발견하면서 자아란 개념이 썩는다. 또 다른 사람이 만져줄 때가 가지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고 사랑함과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탄생 초기 신체적 접촉을 통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나중에 커서 사회적 관계의 기본 틀이 된다.”고 주장했다.

불공을 열심히 할걸...

가정에 수험생이 있는 교도들은 지금쯤 자신이 바로 수험생 된 마음으로 용맹정진하고 계시 겁니다. 나름 ‘아! 평소엔 내가 좀 더 불공을 열심히 할걸...’이라고 아쉬워하면서, 때로는 마치 수험생이 미리 미리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듯이 말합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하겠으나, 이는 인력만으로는 어려운 법이며, 인과의 영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생의 인과 현재의 과를 다스리는 비법이라야, 전생의 업 소멸과 동시에 소원성취가 이뤄집니다. 혹시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경전말씀 대로 자신이 부모 은혜를 감사하며 수순하고 살아 왔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마음껏 공부할 수 없어서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부모를 원망하였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자녀가 공부 관련하여 부모에게 고뇌와 고통을 줍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를 남들처럼 시키지 못하고 때를 놓치게 한 부모의 마음에는 마치 죄인 같은 아픈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한 과보로 인해 내 자녀가 공부라는 것으로 내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인과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사한 상황의 교도가 자녀 시험을 앞두고, 부모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한 과보를 뼈저리게 진찰회불공을 한 결과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가문을 빛내는 영광을 얻게 된 예가 있습니다.

자녀의 수능시험을 앞두고 불공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많이들 익히 알고 실천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거듭 살펴보도록 합니다.

종조법설집 수행편

종조법설집 수행편을 보면, ‘작은 것을 숭상하면 사상이 작은 인물이 되고 큰 것을 숭상하면 큰 인물이 되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12여 년 간 공부한 것을 총 정리하고 어머니 나는 그간 불공해 오며 배운 부처님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대비심을 발휘하여 보십시오.

첫째, 윗대조상들과 부모를 위해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자손이 되기를!

둘째, 오늘날 자신이 많은 유연종생들의 은혜로 존재하므로, 유연종생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셋째, 이 나라 국민으로써 나라의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넷째,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광명을 낼 수 있는 진실한 불자가 될 수 있기를! 위 네 가지를 서원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하면 어떨지요? 윗대조상들 불공을 함께 올리는 것은 조상들의 업덕을 기원함이 되겠습니다. 조상이 주는 덕은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업덕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치 구름이 많은 흐린 날에도 얼굴이 타는 것, 즉 비록 빛이 보이지 않아 강한 빛이 피부에 직접 닿지는 않지만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교도가,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것을 떠나서 큰 뜻을 가지고 불공할 때 마다 “진언행자 000에게 이 나라 국민으로써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라 위해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발원(성불 향한 의지의 표명으로 적극적인 행위로 실천,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을 하였더니

자신도 모르게 용기와 자신감이 넘쳐 목표 이상의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교도는 부처님과 약속한 대로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시험 불공을 할 때는 종조님 불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종조님께서는 총지종도들을 위해 종단을 창종 하셨기에 종조님의 지중한 은혜를 갚는 길이 곧 우리들의 소원성취가 되겠습니다. 또 수험생 불공 시에는 반포법시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본받아 지니게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동원하여 대비심 발휘해야 절절한 마음으로 참회와 차시 끝까지 용맹정진

자녀불공하면서 진실한 참회, 불퇴전의 정진, 간담심 없는 회사로 자신도 효순 근본을 세우고, 유연종생들의 은혜 감사, 나라안해 감사, 인과공부로 사람답게 살게 해 준 부처님은혜 감사함을 인정하며 어떤 결과에 도 수순하면서 실천한다면 행복의 언덕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녀불공하면서 진실한 참회, 불퇴전의 정진, 간담심 없는 회사로 자신도 효순 근본을 세우고, 유연종생들의 은혜 감사, 나라안해 감사, 인과공부로 사람답게 살게 해 준 부처님은혜 감사함을 인정하며 어떤 결과에 도 수순하면서 실천한다면 행복의 언덕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반하신 어느 전수님께서 그 당시 서울대에 아들을 보낸 교도에게 “보살님은 수능시험 날 특별한 일 없으면 꼭 정진에 동참해줘라”고 당부하셨답니다. 그 교도가 전수님 말씀대로 힘 닿는 날까지 빠지지 않고 동참하신 예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대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서원당 교도들께서도 옛날 당신께서 자녀들의 불공을 애타게 하던 기억을 되살려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부처님은 반드시 대비행에 걸 맞는 복과를 주실 겁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어시여, 전국에 있는 수험생 교도 자녀들이 그간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은 물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동참해 주시는 스승님과 여러 교도들의 원력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안온한 마음으로 원만히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도 많은 법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법하여 무탈하면 좋으련만 목전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마음으로 미루어 보고 처방을 내려 실천해야겠습니다. 식재법(遠禍召福)의 제재난 투명당중을 이용하거나 자녀 제재난을 발원하며 절량차별회사를 행하며 마음 모아 더욱 더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진언과 다라니속에는 제불삼보 감통력이 간직되어 있으므로 지극 정성 염송하면 제불삼보와 그대로 감통하여 업장소멸과 심중소원성취가 이뤄집니다.

성불 향해 적극적

수능당일에 자녀들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교도들은 서원당 부처님 앞에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때 시간마다 마음 조복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참회와 차시를 백분 활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용맹정진하셔야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바로바로 차시를 쓰면서 오직 일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불공하면서 진실한 참회, 불퇴전의 정진, 간담심 없는 회사로 자신도 효순 근본을 세우고, 유연종생들의 은혜 감사, 나라안해 감사, 인과공부로 사람답게 살게 해 준 부처님은혜 감사함을 인정하며 어떤 결과에 도 수순하면서 실천한다면 행복의 언덕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반하신 어느 전수님께서 그 당시 서울대에 아들을 보낸 교도에게 “보살님은 수능시험 날 특별한 일 없으면 꼭 정진에 동참해줘라”고 당부하셨답니다. 그 교도가 전수님 말씀대로 힘 닿는 날까지 빠지지 않고 동참하신 예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대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서원당 교도들께서도 옛날 당신께서 자녀들의 불공을 애타게 하던 기억을 되살려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부처님은 반드시 대비행에 걸 맞는 복과를 주실 겁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어시여, 전국에 있는 수험생 교도 자녀들이 그간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은 물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동참해 주시는 스승님과 여러 교도들의 원력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안온한 마음으로 원만히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그때 그 시절

수명관정수계식 봉행

총기 25년(1996년) 11월 21일(목) 12:30 - 14:30

장소 : 대전 만보사
참가교도 : 약 700여명 (수계 약 540여명, 참관 160여명)
수계비 : 1인당 25,000원

대아사리 - 종령 육성
 중계아사리 - 기로스승 대자행, 법장화, 지인사주교 청암
 전개아사리 - 법정원 훈강
 교수아사리 - 통리원장 범공
 걸개아사리 - 건화사 주교 불멸심, 만보사 주교 총지화
 갈마아사리 - 총무부장 원봉

사원	수계자	참관자	비고
개천사	37	25	9
건화사	6	16	
덕화사	7	16	
관성사	7	2	
관음사	12	3	
국광사	9	23	
단향사	3	7	
단음사	10	5	
밀행사	7	2	

중국방문

총기 28년(1999년) 11.25 - 11.29 (4박 5일간)

• 法源寺참배, 中國 佛學院시찰 (안내: 理證法師 32세)
 • 廣濟寺경내 중국불교협회 국제부 접견실 회담
 향후 학생교환, 학술교류등 더욱 원활히 추진하자는 의견제시
 • 중국측 참석자
 張琳(中國佛教協會副秘書長), 能眞(廣濟寺 知客)
 • 한불교도연맹 황병준 부위원장, 임성훈, 이규룡과 회합

사원	수계자	참관자	비고
일상사	7	19	10
운천사	19	10	
화음사	12	7	
홍국사	7	17	
해정사	16	17	
총지사	17	78	
만보사	78	56	
정각사	56	22	561
합	539	22	561

스승 보수교육

총기 27년(1998년) 11월 19일

전국사원 순회 스승 보수교육 실시

교구별	일자	장소
서울-경인, 충청-전라교구	11.9 - 11.20 (10시-17시)	총지사
부산-경남 교구	11.24 - 11.2 (10시-17시)	정각사
대구-경북 교구	12.1 - 12.3 (10시-17시)	국광사

북한 동포 돕기 구호품

총기 28년(1999년) 11.16 - 11.30

북한 동포 돕기 구호품 수집 및 성금모금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함
 구호물품 의류 10,000여점, 신발 100여점 외 기타 생활용품
 운송회사 한성선박 운송회사 (인천항 출항, 북한 남포항 입항)
 주최 불교총지중

<방문>
 인선 강재훈(총무계장)
 화령 이중석(법장원 교무)
 법현(중단협 사무국장)
 지현 장용철(진각종 복지재단 사무국장)
 양산(조계종 사회부장)
 지성(태고종 총무부장)
 정지상(태고종 총무국장)



흥법사 간따모레 합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가을 하늘에 올려 퍼진 자비의 선율, 깨달음의 소리 함께하는 이웃 종단,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찬탄!

올해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각 음악제 '가을, 깨달음을 노래하다.'가 지난 10월26일 정각사에서 열렸다. 이웃 종단과 함께하는 합창과 다양한 음악 초청공연으로 명실상부한 불교총지중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음악제 앞서 경내에서는 다양한 체험의 자리도 마련되어 잔치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이날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정각사 박재원 기자>



진각종 유가 합창단



범어사 합창단



밤벨리의 축하공연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실력의 정각사 밤벨리. 에델바이스는 축하공연의 백미



진각종 스승님의 미소

진각종에서 오신 전수님들의 품위를 잃지 않는 따뜻한 응원이 자리를 빛냈다.



남성 중창단 축하공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합창단 지휘자들로 구성된 고품격 중창단 우정의 노래

2019정각음악제 야단법석 문화체험과 나눔의 한마당

7080 체험부스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경내 마련된 옛날 교복을
입고 익살스럽게 즐거운 한 때

인디언 음악 버스킹

정각사 교도라고 착각
할 만큼 언제나 좋은
버스킹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1석2조의 경품

이번 음악제는
경품추첨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두근두근
제비뽑기 법상인 전수님

잔치날 잔치상

잔치날 먹거리는 풍성
해야 제맛. 잔치상을
손수 준비 중이신 고마운
우리 전수님들

맛간장 과일식초

Premium Well-being Food

복지기금마련 SALE

맛간장 세트
맛간장/과일식초 보급 할인행사

900ml 맛 간장(2병) + 700ml 과일 식초(1병)
~~27,000~~ **22,000원**

(에코박스 포함 가격입니다 / 택배비 별도)

수인사는 매주 무료급식과 매월4주 일요일에 반찬도시락 나누기를 해 오고있으며
11월 김장김치 나누기와 할배, 할매 효잔치와 동치팔죽나누기 등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시 찬조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맛 간장 과일식초
간장/식초

1.8L(1병) 2만원
900ml(1병) 1만원
600ml(1병) 7천원

판매금 20%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무료급식,반찬배달,효잔치,김장나누기 등

부처님의 십대제자5
지혜제일 사리푸트라(4)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화령 정사(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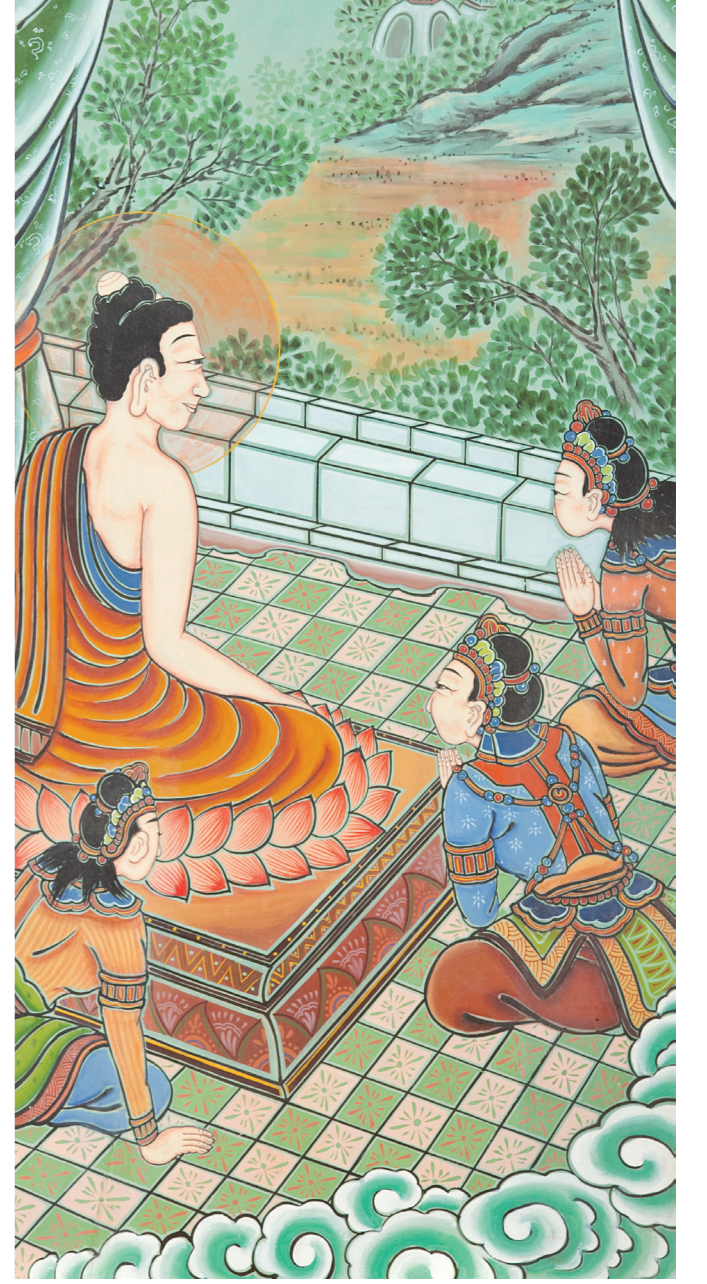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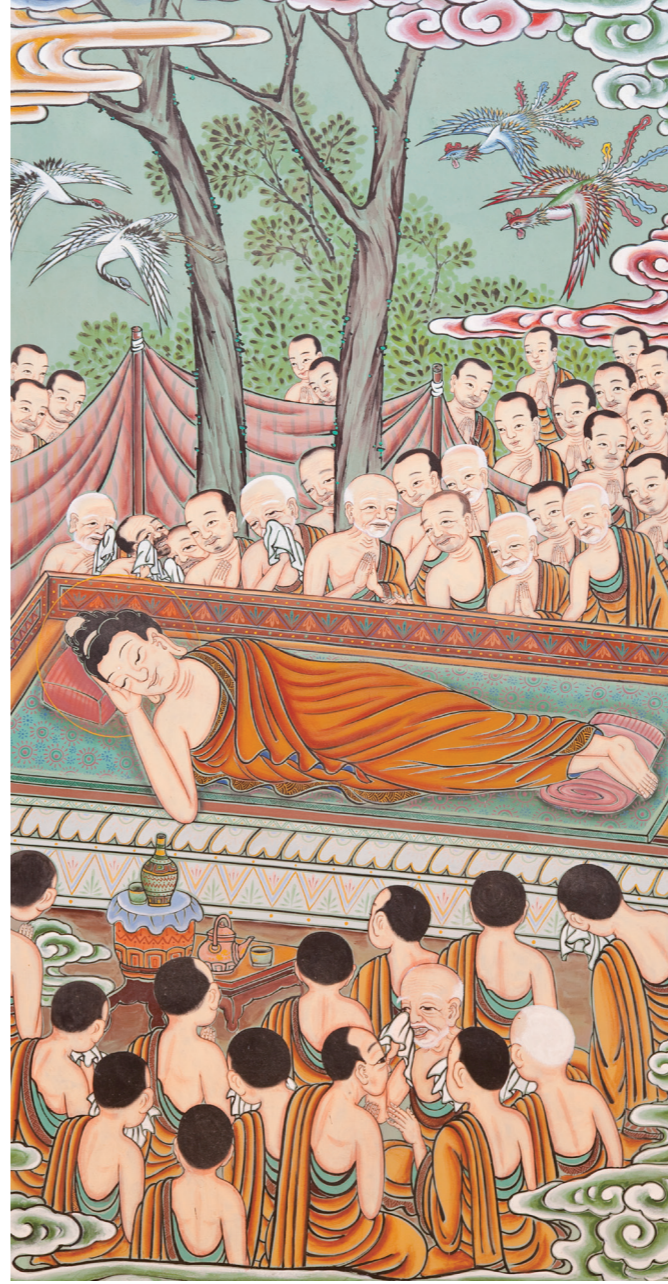
‘자기를 섬으로 하고 법을 섬으로 하라.’는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된 유명한 말씀이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또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의지하라는 말씀이다.

사리푸트라가 출가해서 보름쯤 되었을 때 그의 외삼촌인 디가나가(Dignāga, 장조(長爪))라는 바라문이 이 소식을 듣고 석가모니라는 분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를 확인하려고 죽립정사에 왔다. 이 사람은 사리불 어머니의 동생이었는데 젊었을 때 누구와 논쟁하다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의 남부로 가서 수행을 하면서 철학을 배웠다고 했다. 이 사람은 손톱을 길게 길렀기 때문에 긴 손톱이란 뜻의 디가나가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한다.

이 사람도 일종의 회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아마 부처님의 말씀을 부

서 이러한 실체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연기에 대해 말씀하시자 디가나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견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청정한 법안을 얻고 부처님께 귀의했다. 사리푸트라 외삼촌도 나중에 출가하여 상당히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외삼촌에게 설법하고 계시는 동안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던 사리푸트라라는 이 말씀들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단번에 진리를 이해할 만큼 사리푸트라라는 선천적으로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사리푸트라라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자주

식을 들으셨다. 사리푸트라 의 시종을 들던 춘다라는 소년이 사리푸트라 의 유품인 발우와 가사를 가지고 부처님께 달려와서 알렸던 것이다. 춘다가 왔을 때 아난다가 춘다로부터 사리푸트라가 입멸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춘다를 데리고 가서 빗게 한 다음 춘다를 대신해서 아난다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춘다입니다. 마가다에서 급히 달려왔는데 사리푸트라 존자가 입멸했다고 합니다. 존자의 발우와 가사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리푸트라, 부처님께 허락 받고 조금 앞서 입멸 부처님 제자 관계 넘어 영원한 도반으로서의 ‘삶’

정하면서 어떤 단정적인 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모양이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서는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네의 단정은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고 되물으셨다. 이 말씀에 디가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디가나가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산자야의 경우와 같이 회의론 자체가 자기모순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디가나가에게 세 계나 자아에 대해서 상견이나 단견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설법을 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 계나 자아는 영원 불멸의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견(常見)이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셨다. 또 세 계나 자아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도 단견(斷見)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일체를 부정하고 진리를 의심하는 회의설도 모두 실체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서 생겨난 생각들이므로 중도의 입장에

설법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리푸트라 의 경지가 높았으며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을 할 만큼 사리푸트라라는 부처님의 신뢰가 깊었을 뿐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정도도 뛰어났던 것이다.

사리푸트라라는 부처님보다 조금 앞서서 입멸했다. 사리푸트라라는 부처님께 자신이 먼저 입멸하겠다고 허락을 얻고 고향인 나라다 마을에 가서 친족들에게 최후의 설법을 한 다음 입멸했다. 그 뒤를 이어 목갈라나도 고향 사람들에게 최후의 설법을 한 다음 입멸했다.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제자가 입멸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도 입멸하셨다. 두 사람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한 것은 부처님의 입멸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설도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교외에 있는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가다국의 나라라는 마을에서 사리푸트라가 입멸했다는 소

아난다는 사리푸트라가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이며 만약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사리푸트라가 교단을 이끌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리푸트라가 입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탄식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난다야, 내가 벌써 가르치지 않았더냐?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해야 할 때가 온다.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난다여, 큰 나무에서는 가지 하나가 먼저 마르는 일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보다 먼저 사리푸트라가 죽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를 섬으로 하고 자기를 의지하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섬으로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 마지막 구절의 ‘자기를 섬으로 하고 법을 섬으로 하라.’는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된 유명한 말씀이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또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의지하라는 말씀이다.

사리불과 목건련의 죽음은 석가족의 멸망과 함께 부처님의 만년에 일어났던 가장 슬픈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담담하게 이를 받아들였다. 과거의 업력에 의한 과보는 피하기 어려우며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치를 거스르려고 할 때에 괴로

움이 생기는 것이다.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입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께서서는 밋지국의 웃카체라라는 마을에 머무르고 계셨다. 갠지스강 근처에 있는 이 마을에서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들을 모아놓고 포살 의식을 행하고 계셨다. 그 때 부처님께서서는 대중들을 둘러보시고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말씀 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가 죽은 이후로 이 집회는 텅 빈 것 같구나. 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집회는 쓸쓸하기 그지없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시던 두 제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아무리 무상을 절감하시는 부처님께서도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는 부처님의 제자라고는 하나 거의 연배도 비슷했던 것 같고 스승과 제자 사이를 뛰어 넘어 일종의 우정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 두 사람의 제자를 먼저 보내 놓고 나서 부처님께서도 몹시 허전했던 것 같다.

해탈의 경지에 드신 부처님께서도 사리푸트라와 목갈라나의 부재를 이렇게 섭섭해 하셨으니 그 분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어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우정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初發心自警言文

초발심자경문

화령 울린

불교총지종 법장원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 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7000원 / 10권이상)
문의전화 | 02-508-8933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33)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⑨



법경 정사 (법장원 수석연구원/ 법천사 주교/ 동국대 강사)

정심(井心)

중생의 마음 중에 정심(井心)이란 것이 있다. 정심(井心)은 글자 그대로 우물물의 마음이다. 어찌해서 우물물의 마음인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물물의 마음이다. 이는 중생의 마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물물에 비유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옛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우물 속의 물에 비유한 것이다.

『대일경소』에서 정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정심이라 하는가? 구부러서 우물물을 잠깐 보는데, 알고 깊은 정도를 알기 어려운 것처럼 마음의 성품도 역시 이와 같다.'

계속해서 정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착하거나 착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헤아리지 못한다. 함께 떠돌고 같은 일을 할지라도 역시 그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물물의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여러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속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이다. 연기의

이치를 알게 된다면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일경소』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연기의 법문과 착한 사람의 모습은 모두 드러나기에 알기 쉬우니, 이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정심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기와 인과로써 선과 악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은 대로 받는 것이요, 지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 해도 영원히 덮을 수가 없다.

『명심보감』성심편(省心篇)에 이런 말이 있다. '물밀의 물고기와 하늘의 기러기는 높이 날아도 활로 쏠 수 있고 낮게 바닥으로 내려가도 낚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 간에 있어도 그 가까운 거리의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또 이런 말이 있다. '호랑이를 그리되 가죽은 그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안다하더라도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지 못한다.'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 수 없다.' 모두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우물물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악의(惡意)로 가득 찬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있다.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말이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꿀맛 같이 절친한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음해할 생각을 하거나 돌아서서 헐뜯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는 정심(井心)을 넘어 악심(惡心)에 가깝다. 구업(口業)의 전형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은 참다운 마음

수행은 정심(井心)을 정심(正心)으로 바꾸는 것 탐심과 인색함을 다스리는 법은 오로지 보시뿐

이 아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마음은 자신과 다른 이에게 바람직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모두를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자신과 다른 이에게 솔직해야 한다. 수행이란 정심(井心)을 정심(正心)으로 바꾸는 것이다.

수호심(守護心)

수호심(守護心)이란 무엇인가? 수호하는 마음이란 오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 수호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희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소통, 화합과는 거리가 멀다. 『대일경소』

에서 수호심(守護心)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수호하는 마음이란 오직 이 마음만이 진실하며, 그 외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수호심은 자기주장이 옳다고 하거나 자기 수행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세상 사람이 자기 몸

이나 재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을 두텁게 세워 두르고 갖가지로 방비하여 지켜서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언제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키니 마치 거북이가 여섯부분을 감추어 바깥 경계에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오직 이 수행만이 진실하다고 하며, 그 밖의 모든 수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성문(聲聞)을 학습하는 자는 대부분 이런 마음을 낸다. 그 밖의 견해는 모두 다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자기 논리에 빠져 제 주장만 하는 사람은 수호심이 많은 사람이다. 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가운데 수호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된다. 수행이 깊을수록 수호심을 버려야 한다. 수행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간심(慳心)

간심(慳心)은 아끼는 마음이다. 즉 인색한 마음이다. 『대일경소』에서 간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인색한 마음이라 하는가. 자신만을 위한 뿐, 남을 위해 베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온갖 행위는 모두 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않는 것이다. 곧 탐심이다. 인색하다는 것은 탐욕심이 가득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인색함은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과 진리에 인색한 것도 간심이다. 계속해서 『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재물이나 기에 내지는 선법(善法)을 좋아해서 몰래 아끼며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이 있는 자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알라.'

지식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독식하는 자도 인색한 마음을 지닌 자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에 아끼고 탐함을 버리지 못하면 악취에 몸을 받아 나는 인연을 짓는 것'이라 하였다.

또 『칠불본원공덕경』에서는 '만약 중생이 오직 탐욕스럽고 인색하여서 보시와 보시의 과보를 알지 못하며, 어리석어서 지혜가 적고 신심이 없으며, 재산을 쌓아두고 지키기만 하고, 사람들이 곡식을 빌려러 오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설혹 부득이 하여 보시를 하더라도 자기의 살을 베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명을 마치고 아귀나 축생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인색한 마음은 보시와 자비심이 없는 마음이며,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다. 이는 남에게 베풀거나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탐심과 인색함을 다스리는 법은 오로지 보시밖에 없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인색한 마음은 베풀거나 무상(無常) 등을 사유함으로써 다스릴 수 있다. 재물과 기능이란 영원하지 않기에 베풀 때에도 나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무주상보시를 말하고 있다. 보시 그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일체는 무상(無常)한 것이다.

정성준의 후기밀교 자유기교가 정성준

헤와즈라판뜨라와 공성, 그리고 나란다대학



인도후기밀교는 화엄이나 천태의 불전 문학, 삼론이나 법상의 신유식, 선불교에 익숙하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의 소와 별기, 원측의 『해심밀경소』를 공부하면 밀교에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한마디로 중국불교의 지역성에 기인한 사상적 각색으로부터 벗어나있다. 밀교는 용수

보살의 사상을 계승하며, 공성과 유식의 양 수레의 궤를 잃지 않는다. 용수보살의 교학은 인도 나란다대학의 전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불교를 변화시켰다. 인도 후기밀교에서 보이는 아무리 심오한 비의도 용수보살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인도후기밀교에서 불이존에 대한

교의적 시선은 누구나 궁금해 한다. 어쩌면 후기밀교의 벽을 넘는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불교의 불이존은 관념적 해석이 강하다. 『헤바즈라판뜨라』에는 불이존에 대해, "요기는 방편이고 자비이며, 반야모(mudrā)는 모든 인(因, hetu)으로부터 벗어나있다. 공

성과 자비의 구별이 없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I.10.40)"라고 하였다. 요기는 수행자로서 인격이다. 의식과 더불어 삶과 뼈, 근육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현상이다. 때문에 요기는 실상의 활동적 측면을 가리키기에 방편이다.

방편은 두 가지 기로에 있다. 방편을 자아성이나 불변성, 영혼과 같은 실재로 착각하면 그는 아득한 윤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방편은 오로지 공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비로소 해탈이 가능하다. 불이존에 대해 인간의 성질을 들이대면 판뜨라의 벽을 넘지 못한다. 인간의 자아에 대해 그 공

성의 본성을 관조하고 결합하는 것이 바로 수습이다. 성정을 통한 인간의 현실을 가감 없이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현실은 마음과 티레, 풍과 풍맥의 통로로 이루어진 육신이며 독립적으로 온존한 풍맥의 통로를 다할 수 없다. 때문에 불이존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후기밀교의 불이존은 관념적인 공성의 수습과 방편신으로서 정신을 육체적 존재로 이끄는 지식이 숨어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무드라는 진리로서의 실상을 가리킨다. 유행의 분별이 아닌 무분별의 자각에서 보이는 실재이다. 만다라의 사무드

라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반야모는 유행으로서 인격이 아니다. 『요가라프나팔라』에서는 반야모에 대해, "무드라는 반야모를 뜻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반야는 제법불생의 공성이다. 왜 불생이 공성인가? 모든 인(因)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자기로부터, 타자로부터, 이 둘로부터도 혹은 이 둘이 아닌 것으로 부터도 벗어나있으며, 모든 사물은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생의 특징이 공성이고 그것이 최상의 반야이다"라고 주석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나가르주나의 『중론』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벽룡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 | | | |
|-------|-----------|-------------|
| 취급 품목 | ▶방수공사전문업체 | ▶각종페인트 도·소매 |
| | ▶인테리어 집칠 | ▶기와칠 벽돌방수 |
| | ▶공사청부 | |



SAMHWA 삼화페인트 NOROO

전윤호 시인의
‘붓다와 문학(2)’

금오신화
‘만복사 저포기’



시인 전윤호

네가 진심으로 짝을 만나고자 한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한 그루 배꽃나무 외로움을 벗 삼았네
근심이 많은 달 밝은 이 밤에
통소를 부는 사람은 누구의 고운님인가
물총새는 짝 잃고 날아가고
원앙새 한 마리가 맑은 물에 노니는데
외로운 내 마음은 바둑이나 돌거나
등불은 가물가물 이내 신세 보는 듯.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살
았는데 때는 왜구의 침범이 잦았던 때
라 하니, 고려 말 조선 초쯤이었다. 일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불당에 숨어 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와 부처에게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양생이 나타나 자신이 하늘의 계
시를 받고 이곳에서 기다렸다고 하니
아가씨 또한 그러하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그러
자 아가씨의 시녀들이와 신방을 꾸미
고 잔치 음식을 장만하여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아가씨의

조선의 천재라는 김시습이 지었기 때
문이다. 다섯 살에 임금에게 불려가
시를 짓고 상을 받았다는 시인이니 세
조가 싫어 속세를 등진 뒤에도 매일
시를 나뭇잎이나 바위에 써서 버렸다
고 한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
문 소설로 여러 편의 단편들을 묶은
것이다. 시대에 저항한 저자답게 현실
과 환상을 섞으며 세상의 도덕에 메이
지 않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삶과 죽
음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상상력은 읽
는 이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
어 준다. 감히 부처와 주사위 내기를
걸고 귀신과 사랑에 빠지는 사내는 결
국 어찌 되었을까? 장담하건대 이 뒤
의 이야기도 전반부처럼 기기묘묘하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현실과 환상 넘나드는 기기묘묘한 이야기

찍이 고아가 되어 만복사란 절에 방
한 칸 얻어 사는 처지였다. 가문의 후
광이 없으니 과거에도 급제하기 힘들
고 가난하여 시집을 여자가 없어 노총
각으로 늙어갔다. 그래서 배나무를 보
며 산책하다가 이 시를 읊으며 자신의
쓸쓸함을 달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런 말이 들렸던 것이다.
“네가 진심으로 짝을 만나고자 한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다음 날 절로 간 양생은 부처와 주사
위 놀이로 내기를 건다. 이기면 좋은
인연을 짝 지워 줘야 한다는 조건이
었는데 양생이 이겼다.

손을 잡고 아가씨의 거처로 가니 개녕
동이란 곳이였다. 그곳에서 사흘을 지
냈는데 아가씨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저는 저승의 사람인데 처녀로 죽은
것이 한이 되어 부처님께 청하여 당신
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헤어져야 합
니다.”
그리고 친구라며 세 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별
의 밤을 보냈다. 여기까지 읽어도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연속이다. 그리
고 각 장면마다 등장인물들이 시 한
편씩을 읊는데 그 시들 역시 보통 솜
씨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스포일러
를 함부로 펼치지 않았다. 한 번 읽어
보시란 의미이다. 이밖에도 여러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매
단편마다 여러 편의 시들이 들어 있
어 한 편의 소설과 한 편의 시집을 함
께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참고로 경
주의 금오산에서 집필했다 하여 <금오
신화>이다. 그는 속세인도 아니고 승
려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았는데 이
역시 그와 어울린다. ‘진심으로 짝을
만나고자 한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
느냐’ 이상하게도 이 한 마디가 오래
남았다.



고려 문종(재위 1046~1083년)
때 처음 세운 만복사가 자리했던
터이다. 처음 지었을 때 경내에는
동으로만든 거대한 불상을 모신 이
층법당과 오층목탑이 있었다고 한
다. 근래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가
운데 목탑을 세우고 동·서·북쪽에
각각 법당을 배치한 일탑삼금당(一
塔三金堂)식 배치였다. 이 사찰은
김시습의 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
에 실린 ‘만복사저포기(萬福寺袴蒲
記)’의 무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불교문화대축제, 부산·경남교구 총지중 홍보
먹거리, 차 나눔 부스 설치, 시민들 큰 호응



한 ‘향을 만나다, 전통차 나눔’
부스에서는 차와 다과 제공으
로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참가
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
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불교문화대축제는 한국
불교의 중심 부산에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몇 달 전
부터 부산불교계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행사다. 아울러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부산시민들과
함께하고 11월에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인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
련됐다.

축제는 사찰, 교계단체, 복지
시설 등에서 불교문화를 알리
고 체험하는 부스가 운영되었
으며, 본행사 이전부터 인산인
해로 10만 불자 결집을 실현했
다. 부산·경남교구도 이에 발맞
춰 이날 부스 설치와 행사 참여
로 많은 총지 교도의 자부심을

불교총지중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정
인화 전수)는 지난 10월 20일 부산시민
공원에서 열린 불교문화대축제에서 불
자들과 일반 시민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
고, 총지중 홍보와 함께 참여 관객들에게
먹거리 보시를 했다.
20만 불자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저력을

자랑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
대축제’ 부대 행사에서 정각사가 마련한
먹거리 부스에서 교구 교도들의 심사일
반 봉사활동으로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총지중 부산경남교구 부스에서는
팍팍과 솜사탕을, 정각사 다도회가 준비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총지중 도현, 우
인, 도우, 범상 정사가 내빈으로 무대위
에 자리를 빛냈으며, 범상인, 금강륜, 정
인화 전수와 남해, 도신 정사가 총지중단
을 대표해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봉행
을 했다. <부산=정각사 김부강 계장>

시
정
토

빵 한 개와 갈 한 자루

미앗푸에잉

친구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면 설탕 한 컵이나
꿀 한 병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달콤한 즙이 말라버린
사탕수수 한 대를 꾸역꾸역
빨고 있는 것만 같아
친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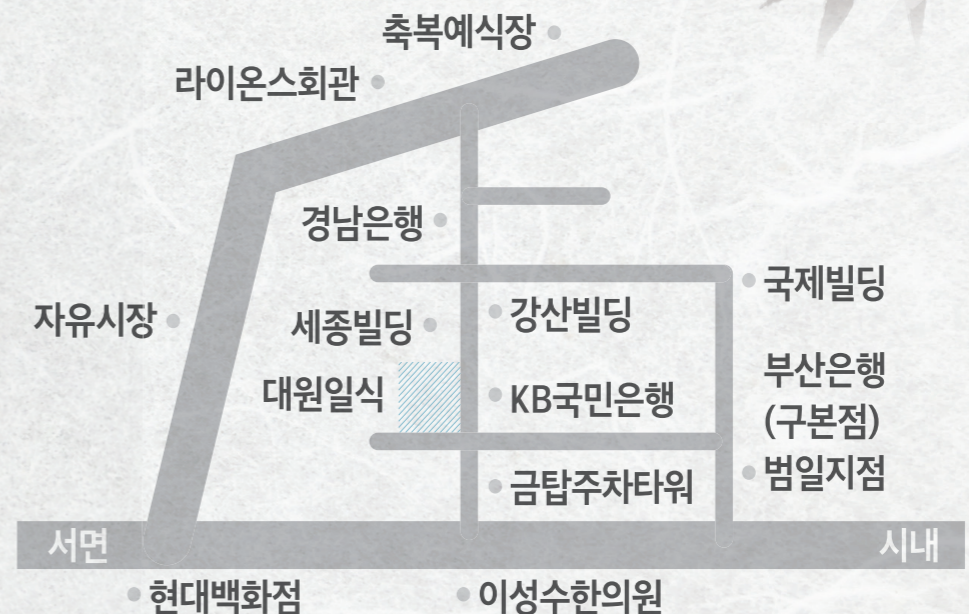
친구야 빵 한 조각이랑 반찬을 위해
빛을 쬐야 했던 내 눈물들은
바닷물처럼 엄청나게 불어났지
대접하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내주고 싶지 않은 곳에서 힘들게 나날들
을 정말 힘들게 견뎌왔어
잔인함이 나를 억누르고
어려움이 나를 내려치니까 힘든 나의 인
너의 시선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을 거야

친구여 친구야!
너도 가고 있고
나도 가고 있어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에서
나눠줄 선물을
힘을 합쳐 배풀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그곳에
이르도록 앞을 향해 나아가자
친구여

모과나무 출판사 출간,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빵 한 개와 갈 한 자루'의 대표 시작가는 미안마 출신 남자로 시각장애인이다.

대원 초밥요리 전문점

대표 지영심



전화 051-646-0035~6 | 010-6893-5179

주소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50

마곡사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전국불교합창제

총지종 마니, 만다라 합창단도 1,500명 한 무대에



전국불교합창제에 참석한 서울 마니합창단과 부산 만다라합창단 그리고 신정희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회장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전국 불교합창제와 음악제가 지난 9월 27일 공 주금강둔지에서 1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부에서는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일대기의 교성 곡 '봇다' 공연이 있었다. '봇다' 공연에는 도신스님과 가수 주병선, 국악인 신이

나를 비롯해 전국의 불교합창단원 1,500여 명이 참여해 한 무대에 섰다. 이날 지휘는 교성곡 '봇다'를 작곡한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직접 했으며 연주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국악연주단, 무용은 의정부시립무용단이 맡았다.

불교총지종은 이날 서울 마니 합창단 단원 13명과 부산 만다라 합창단 5명이

무대에 올랐다. 또 전국서 불교총지종 만보사 안성 정사, 정각사 도현 정사, 백월사 해곡 정사, 단음사 수현 정사가 내빈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신정희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회장이 격려차 방문했다.

또 2부 음악제는 미스트롯에서 1등을 차지하며 전국에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송가인이 출연해 무명배우와 한 많은 대동강, 진도아리랑 등을 부르며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적우가 아름다운 강산과 하루만, 안치환이 내가 만일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불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로법회를 다녀와서

도반들과 마음의 벽 허물고 한 발짝 가까이

총지종의 큰 행사로 2년 마다 열리는 경로법회가 어느덧 열세 번째를 맞이했다. 경로로 승격(?)한 후 세 번째로 참석하는 법회다. 자연 경관이 좋은 주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청송 대명리 조트 법회장은 500여 명의 많은 도반들로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고, '음마니반매혹'을 영상으로 표현해 한층 깔깔하고 세련되게 연출해 놓았다. 종령님께서서는 입제사에서 노년기 일 수록 많이 걷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령관리 잘하여 오래도록 경로법회에서 만나는는 당부 말씀도 있지 않았었다. 나도 우리 총지 도반들이 수복강녕하고 건강 장수하여 오래오래 이 경로잔치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바랐다. 청송은 온천으로도 유명하다. 어르신들은 뜨거운 온천 목욕하기를 즐겨하신다. 경로법회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다. 각 사원별로 목욕시간대를 정해 온천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저녁시간엔 유쾌한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머 강사계의 대부 방우정님의 '웃음과 함께 하는 소통' 강의로 교도들에게 한바탕 웃음의 세계로 안내하였고, 음악공연이 이어졌다. 정각사 교도들의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밤벨 합주곡으로 서막을 알리며 공연장 분위기를 한껏 올려놓았다. 뒤를 이어, 앰프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가 연회장을 더욱 후끈 달아오르게 하며 흥을 고조시킨다. 플롯 선율, 우리가락 한마당, 마지막 순번인 트로트 음악은 향연에서 빠질 수 없는 대중음악으로 공연장을 절정에 올려놓았다. 우리 사원의 도반들은 공연만으로는 흥을 주체 못해, 리조트 노래방에서 노보살님의 베풀음으로 남은 흥취를 풀어내었다. 다음 날, 주왕산의 산세에 흠뻑 취하며 내 바램대로 용추폭포에 오를 수 있었으니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 7년 전 산사순례 때 산 입구에 있는 대전

사에만 참배하고 돌아선 아쉬움이 진한 여운으로 남았었다. 언젠가는 주왕산 정상도 도전해 보리라. 젊은 날 산 등성을 오를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받을 테니까! 이번 경로법회를 통해 도반들과 더욱 가까워진 듯하다. 사원에서 수행만을 일삼는 우리들에게 대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터라 늘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한 채 지내 왔었는데, 그 경계심이 사라진 듯하여 참으로 기쁜 마음이다. 우리 종단에선 오랜 세월 몸뚱이 수행해온 교도들을 위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심신의 피로도 풀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시니 더없이 감사할 뿐이다. <부산 자석사= 김정숙 교도>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수인사, 포항 대표음식 개발 시식 품회



수인사(주교: 범일 정사)에서는 포항 대표음식 과메기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음식개발 시식 품평회를 지난 10월 7일 가졌다. 포항시 수산과와 경북 매일신문 주관으로 열린 시식 품평회는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하여, 수인사 교도 김조은 요리사의 과메기 요리에 대한 설명과 시식을 통해 요리 개발부분에서 최상위 평을 받았다. 김조은 요리사는 수인사 교도 사찰요리 박금화 선생의 딸로 모녀가 요리선생이며, 수인사 공양처를 책임지고 있다.

벽룡사 산악회, 고창 선운사 참배



벽룡사(주교: 승원 정사) 산악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박 2일 간 정기 관불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산악모임에는 총 15명의 회원과 벽룡사 주교 승원 정사와 묘원화 전수가 동반했다. 참석자들은 군산 근대문화거리 일대를 관불하고, 선유도 등반 및 변산반도 직소폭포 돌레길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고창 선운사를 들러 참배를 마쳤다.

수인사, 만보사 등 가을 삼사 관불 봉행



수인사(주교: 범일 정사)는 지난 10월 12일 가을 삼사 관불을 다녀왔다. 총 39명의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만보사, 공주 감사, 신원사를 돌며 가을 풍경을 가슴에 담았다. 금번 삼사 관불은 종단 사원 만보사를 첫 목적지로 삼아, 전통 사찰만 찾아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불의 의미를 총지종 사원으로 눈을 돌려 관불지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어울림소식



서울 밀인사 김종형 각자 전국 회품미술대전 서예 부문 입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 고지연 교무 2019년 11월 24일(일) 오후 3시 더이스턴하우스 2층 에스톤하우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총지사 교도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월초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린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향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제안민-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제안민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기교구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 3리 대경길 36-19 (054)745-5207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중로구 종로 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번길 15 (하대원동)	(031)751-8685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길 20-1 (구정동) (054)746-7434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부산,경남교구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길 51	(02)983-1492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02)552-1080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도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충청,전라교구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82-1 301호 (초량동) (051)468-7164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 530번길 30 (대사동)	(042)255-7919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시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 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남로 131번길 5 (내덕동)	(043)256-3813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17길 12(자산동) (055)223-2021	
홍곡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 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절찬리 분양중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
(초량지구대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1분거리, 대형마트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LG휘센스마트천장형에어컨
친환경동화자연마루시공
실크벽지
불박이장
LG공기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파트 | 23세대 (2Type)

오피스텔 | 34호 (3Type)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문의 051-468-7164